“엄동설한에 무료급식도 하지말라니”

영등포 쪽방촌의 안타까운 사연

쪽방촌도우미 무료급식소
주방 시설 가건물로 판정
1500여 만원 벌금 부과돼
“어려운 이웃 돕는 일인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파가 몰아친 12월 6일 쪽방도우미봉사회 회원들이 음식을 만들고 있다. 작은 이 무료급식소는 해당구청의 벌금부과로 철거위기에 처했다.

“하루 하루 힘들게 사는 쪽방촌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주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애석합니다. 봉사자들도 쉬고, 조리도구도 보관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불법가건물이라고 이 엄동설한에 무조건 철거하라며 과도한 벌금을 내라니… 1평도 되지 않는 곳에서 무료급식만 기다리는 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수은계조차 얼린 한파가 몰아친 12월 초, 영등포 쪽방촌에 비보가 날아왔다. 쪽방촌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담당했던 쪽방도우미봉사회 무료급식소를 철거하라며 벌금이 부과된 것이다. 엄동설한에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무료급식까지 못하도록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영등포구청을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불자 봉사자들이 영등포 쪽방촌을 돕기 위해 구성한 사단법인이다. 영등포 쪽방촌은 영등포역 뒤편 철도 인근에 자리한 판자촌으로 1평도 되지 않는 작은 방에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르신들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노숙자들이 기거하고 있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매주 목요일 일주일 먹을 음식을 만들어 배달하고, 무료급식소에서 국수 등을 만들어 보시하고 있다. 쪽방도우미봉사회의 활동 터전은 쪽방촌 가운데인 영등포동 618-584에 위치한 작은 무료급식소다. 여기서 봉사자들은 음식을 조리한다.

영등포구청은 이 무료급식소가 가건물이라며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무료급식소 철거 움직임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등포구청 푸른녹지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사단법인 쪽방도우미봉사회 대표인 정일화 씨는 2016년 9월 20일 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영등포구청은 무료급식소 철거에 대한 강제이행금을 2017년 634여만원을 부과했으며, 2018년에는 565여만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가건물 부동산 취득세 123만원과 철도청에 부과명령을 통해 철도청의 철도부지 사용료 140만원까지 부과했다. 2017년부터 부과된 금액은 1500여만 원에 달한다. 일정한 후원자가 없는 상황에서 십시일반 노력봉사로 쪽방촌 소외계층을 돕는 이들에게 사실상 무료급식을 하지 말라는 행정처분이다.

1990년부터 30년 가까이 쪽방촌을 돕기 시작한 김윤석 경위는 “2001년 2월 영등포의 한 파출소 옥상에서 천막을 치고 이 지역 반찬봉사를 시작했다. 당산동 건물 철거로 2016년 10월부터 영등포 쪽방촌 컨테이너를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행정처분은 봉사회로선 너무 큰 부담”이라며 “천막을 치고 봉사가 가능하지만 조리도구 보관을 비롯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구청도 사실 관내 소외계층을 돕는 일인데 과도하다”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영등포구청 담당부처는 관련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푸른녹지과 담당자는 “안타깝지만 해당 부지는 철도 완충 녹지로 2016년부터 계도 후 철거 강제이행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법상 철거 때까지 연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장소에서 무료급식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인근 교회 측에서 불교계 봉사에 민원을 제기한 것이 주원인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쪽방도우미봉사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조계종조사계붓다맘 등도 함께 명시하고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구청 징수과 관계자는 “주변 민원으로 인한 민원 사항으로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타이틀도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에 함께 명시토록 한 것이다. 영등포구청과도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음악계 거목 ‘운문 스님’ 원적

보현행원 등 찬불가 1000여 곡 작사



불교음악계 거장 운문 스님〈사진〉이 12월 10일 세수 91세, 법랍 74세로 원적에 들었다. 운문 스님은 예불가, 보현행원, 산회가 등 한국불교계를 대표하는 찬불가 1000여 곡을 작사한 불교음악계 거목이었다.

1928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난 운문 스님은 1944년 망월사서 인곡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1953년 해인사 전문강원을 수료했다.

청소년 포교에 큰 뜻을 둔 스님은 1964년에는 불교동요집을 발간했고, 1966년 청소년교화연합회를 창립했다. 불교음악 중흥의 시작이었다.

이후 40여 년 동안 찬불동요를 포함해 총 1000여 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만들었으며, 이런 공로로 1987년 제1회 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을, 1990년 제3회 조계종 포교대상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스님은 생전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보배의 탑을 가득히 쌓고, 불전에 많은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세우신 큰 서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빚을 지는 일”이라며 전법포교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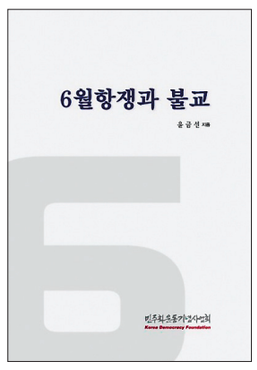
노덕현 기자



라면 · 솜이불로 전한 慈悲의 손길 생명나눔실천본부 회원들이 소외이웃에 솜이불과 라면을 전달했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이하 생명나눔)는 12월 10일 서울 노원구 중계2, 3동 주민센터 대강당서 ‘제5회 생명나눔과 함께하는 따뜻한 정 나누기’ 행사를 열고, 저소득 독거 장애인 · 어르신에게 솜이불 200채와 라면 200박스를 전달했다. 행사에 쓰인 지원물품은 가수 겸 배우 수지 씨가 후원한 성금 1,500만 원으로 마련됐다. 이사장 일면 스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중계동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부처님께서 이웃을 위한 자비심을 강조한 만큼 불자들도 정 나누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원 기자

1980년대 불교계 민주화운동 기록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항쟁과 불교〉 발간



‘민주화는 정토 구현’ 기치로
스님 · 재가불자들 거리로 나와
민중불교 태동부터 6월까지
불교민주화운동 역사 기록해

197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태동부터 1987년 6월 항쟁까지 불교민주화운동사를 담은 기록서가 발간됐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최근 〈6월항쟁과 불교〉를 발간했다. 책에는 6월항쟁 당시 불교계의 대응과 투쟁 양상, 그리고 1980년대의 치열하고도 지난했던 불교계의 이념 모색과 투쟁 과정이 담겨 있다.

1987년 6 · 10민주항쟁(이하 6월항쟁)의 시발점은 그해 1월 14일에 일어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이었다. 그로부터 6개월간 ‘박종철을 살려내라’,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는 국민들과 폭력진압에 나선 전두환 정권 사이에 접전이 벌어졌다. 이때 최루가스 자욱한 거리에서 잿빛 승복 휘날리며 불퇴전의 기개로 시위를 벌이는 스님들이 등장했다. 이는 한국사회의 새로운 충격으로 다가왔다.

기실 6월 항쟁 당시 종교계의 역할은 지대했다. 성당 · 교회 · 사찰에서는 박종철 열사 추모집회와 ‘민주헌법쟁취’ 전국 동시다발 집회의 개최를 알리는 타종을 했고, 집회 · 시위 · 농성의 거점 역할을 했다. 천주교 · 개신교계는 ‘민주화는 우리의 십자가’라고 외쳤고, 불교계는 ‘민주화는 정토의 구현’이라고 외쳤다.

〈6월항쟁과 불교〉는 1980년대 불교계의 불교자주화 · 사회민주화 투쟁을 망라한 기록서다. 1970년대 민중불교운동의 대동부터 사원화운동, 민중불교연합과 불교정토구현전국승가회의 창립 등의 전말이 생생히 정리돼 있다.

이 시기 불교계 민주화운동은 한 편의 대서사시에 가깝다. 당시 운동에 참여한 승가 · 재가 지도자들과의 인터뷰와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공들여 정리한 투쟁기는 사뭇 생생하다. 또한 책 뒤에 실린 1980년대 불교계의 주요 성명서 · 시국선언문 24편은 불교현대사 측면에서도 사료적 가치가 높다.

6월항쟁 당시 국본 상임공동대표로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지선 스님은 “유신독재 시절, 적극 나서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민족민주운동을 모색했던 불교인들은 198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일어서기 시작했다”고 회상하며 “〈6월항쟁과 불교〉에 그 치열했던 현장과 불교계의 엄중한 투쟁 과정을 충실하게 정리하고자 노력해 기초 자료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언론문화상 ‘원효, 돌아보다’ 대상

뉴미디어 최우수상엔 한마음선원 유튜브 채널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주최하고, 조계종 문화부가 주관하는 제26회 불교언론문화상 대상에 KBS 부처님오신날 특집 ‘원효, 돌아보다’가 선정됐다.

조계종은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언론을 통해 건강한 사회발전에 기여한 방송과 신문, 뉴미디어 등 뛰어난 불교관련 작품을 선정했다”며 12월 11일 수상작을 발표했다.

언론계 공로로 올바른 언론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불교언론인상에는 인터넷방송인 ‘유나방송’ 진행자 정목 스님이 선정됐다. 방송부문서는 최우수상 KBS ‘물러나… 산문에 들다’와 우수상 KBS 힐링다큐 나무야나무야 ‘순천 불일암, 스승의 나무’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문부문서는 불교신문 2019년 3.1운동 100주년 기획 ‘불교항일운동, 그 현장을 가다’가 최우수상, 법보신문 ‘조계종 총무원장 열전’이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뉴미디어부문은 한마음선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 최우수상을, BBS 애니메이션 고승열전 경허대선사 12부작이 우수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특별상에는 ㈜현기획 ‘잃어버린 보물 귀향을 꿈꾸다 신흥사 영산 회상도’와 BBS라디오 거룩한 만남 난치병어린이 돕기 특집 ‘아프지말아요’가 각각 선정됐다.

윤호섭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6년 ~ 고3 재학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 (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군입대 연기 가능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학자금 대출 가능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모집기간 :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 (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교학처 : (02)511- 2026, 2027
Fax (02)511- 2028
▶총장실 : (02)511- 1080
▶http://www.njutcm.co.kr